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499장 ..... 다같이

1.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2.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3.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4.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 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있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후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마가복음 8:22-26 ..... 인도자

### 설 교 ..... “무엇이 보이느냐”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헌신과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 전도통합예배 때에 전도대상자들이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3. 세상의 분열과 미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무엇이 보이느냐

마가복음 8:22-26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이적이다. 특징은 한 번에 치료를 완료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다. 왜 한 번의 안수로 고치시지 않고 두 번의 안수로 고치셨을까? 왜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벧새다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벧새다 들판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선한 자들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정죄하며 괴롭히는 자들도 있었고, 맹인을 데리고 앵벌이 시키는 자들도 있었고, 맹인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시각 장애인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은 못 하니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을 대시기를 요청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질곡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이에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온기가 전해진다. 그 후 예수님은 침을 뱉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셨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7장에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침을 뱉어 안수하시면서 “에바다” 하셨다. 고대에는 침의 치유적 효능을 믿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을 주기 위해 하신 행동이었을 것이다. 안수를 마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 보나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나무면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가? 나무 같은데 걸어 다니니 사람 같다. 사람이 나무로 보이면 되겠는가?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인격체가 비인격체로 보인다. 어떤 대답이 나왔으면 좋았을까? ‘주님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셨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력 교정을 하시는 것이다. 치유 행동이 두 번인데 이는 두 단계의 치료 과정을 보여준다. 때로 신유의 은사 속에는 즉시 치료도 있지만 점진 치료도 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첫 단계가 ‘보는 것’의 물리적 시력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보는 것’의 내적인 인식의 회복 즉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믿음이 희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만져 주심이다. ‘안 보이는 것’에서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온전히 보는 것’으로 나아간다. 예수님 이적 가운데 맹인이 눈을 뜨는 기사가 제일 많다.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빛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육안으로는 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맹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 육신적 맹목보다 영적 맹목이 더 큰 문제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한동안 보지 못한 채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 기적을 또 시행하셔야 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Sight가 Insight로 승화되어야 함을 알려 주신다. 우리는 육안, 뇌안(이성), 심안(예수), 영안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한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맹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소문도 내고, 간증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일도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는 신앙의 내면화를 요구하신 것이다. 바울도 다메섹 체험 뒤 삼 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야 견고하게 다져지고 요동함이 없어진다.